

No.20150624-001

제목: 사쿠라기 후타바의 세계

저자: 카스가 미카게

페이지수: 366

장르: 소설

출간일: 2015년 04월 12일



<내용소개>

인기 소설 작가 사쿠라기 후타바의 소설의 비밀을 알게 된 편집자와, 사쿠라기의 소설의 세계에서 만난 일본의 대 문호들이 펼치는 이야기

과거나 미래를 여행하는 시간여행은 누구나 한 번쯤 꿈꿔 보았을 것이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다시 되돌린다고 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소리일지도 모르지만, 시간여행은 소설 '타임머신'부터 영화 '백 투더 퓨처' 시리즈까지 SF물의 단골소재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개념이다. 수 많은 SF 작가에게 시간여행은 매력적인 소재이고, 그 만큼 수없이 반복해서 사용 되어 새로움이 바랜 감이 없지 않은 소재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면 볼수록 빠져들고, 정말 시간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 소재이기도 하다.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한다는 것은 시공간상에서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의미이다. 시간은 한 방향으로 흘러가니 원래 출발한 시공간으로 돌아가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공간을 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이 시공간을 휘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웜홀'이라는 시공간이 떨어져 있는 두 지점을 연결하는 지름길을 이용하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도 시공간의 '웜홀'은 중요한 요소인데, 여기서는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웜홀'로 전화박스를 사용하고 있다.

신입 편집자인 탄마치는 수수께끼에 쌓인 인기작가 사쿠라기 후타바를 담당하게 된다. 탄마치는 편집자로서 요코하마에 살고 있는 사쿠라기를 찾아갔다가, 우연히 사쿠라기가 어떻게 인기 작품을 쓸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밀을 알아 버리고 만다. 그 비밀은 사쿠라기가 직접 자신이 생각한 소설의 배경으로 시간여행을 다녀온다는 것이었다. 그의 비밀을 알아버린 탄마치는 사쿠라기와 함께 소설의 세계에 뛰어 든다. 사쿠라기가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소설의 배경은 일본 관동대지진(1923년 9월 1일)전날 밤이었다. 그 곳에 뛰어들어 가장 먼저 만나게 된 것은 잠시 요코하마에 머물던 일본 소설의 명인 타니자키 준이치로였다. 타니자키와 함께 사쿠라기, 탄마치는 새 소설의 주인공과 함께 소설을 써내려 가는데 힘을 쏟는다. 현실과 과거를 오가면서 1920년대의 유명한 소설가들도 차례차례 등장한다. 처음에는 사쿠라기와 탄마치의 과거여행 인듯하지만, 어느새 타니자키의 미래여행도 함께 등장해서 더욱 재미있게 느껴진다. 시간 여행을 통해 소설을 쓴

다는 흥미로운 소재와 함께 펼쳐지는 다양한 사건들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소설이 금새 끝나있을 것이다.

<목차소개>

제 1화: 사쿠라기 후타바의 세계

제 2화: 빨간 구두의 소녀

제 3화: 비밀 / 항구의 사람들

제 4화: 마술사

제 5화: 용

<저자소개>

카스가 미카게

라이트 노벨의 설정으로 역사적 사실을 엮은 역사 IF 판타지를 주로 쓴다. 대표작은 TV 애니메이션화가 된 '오다 노부나의 야망'시리즈. 취재를 겸해 일본 각지를 돌아다니나, 현재는 요코하마에 있다.

No.20150624-002

제목: 지르베니의 식탁

저자: 하라다 마하

페이지수: 276

장르: 소설

출간일: 2015년 06월 25일



<내용소개>

모네, 마티스, 드가, 세잔. 서양 미술가의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한 단편 소설집

한 장의 그림을 보고, "아, 이 그림 좋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그 마음을 움직이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정말 짧은 시간이다. 한 순간에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림은 오랜 시간 쳐다보고 있어도 질리지 않는다.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을 계속 보고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 그림에 대해 연애감정이 피어나는 것일지도 모른다.

현대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림은 19세기 말부터 시작한 '인상파'의 화가들의 그림이 많다. 유명한 모네, 마티스, 등. 그림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그림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지고, 그림을 그린 화가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지게 된다. 이 책에 수록된 네 가지의 이야기는 마티스, 드가, 세잔, 모네라고 하는 격동의 시대를 살아온 화가에 대해, 그림을 그릴 때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순수하게 작품에 매료되어 화가를 마음속으로부터 존경해온 사람들의 눈을 통해 그려지고 있다. 존경하는 마음을 알았는지, 화가들도 그 들을 신뢰하고, 필요로 함으로써 그들의 애정이 유지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꽃을 전하러 온 마리아에게 매료되어 가정부로 삼은 마티스, 그 젊은 가정부의 시선으로 마티스의 예술에 대해 그리고 있다. 체력이 약해져 캔버스에 다가가지 못함에도 종이를 오려내어 자신의 예술을 계속 표현해 간다. 다음으로는 어린 무용수를 통해 작품세계를 표현해 나가는 드가를 친구인 메리의 눈을 통해 그리고 있다. 이어서 한 장의 초상화에서 시작된 이야기로, 화방을 운영하는 탄기 할아버지와 이야기 나온다. 탄기는 적자를 감수하면서 젊고 가난한 화가에게 그림 도구 라는 희망을 나누어 준다. 그래서 폴 세잔 이라는 거장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네의 지베르니 생활에 대한 이야기이다. 모네의 재혼상대가 데려온 아이가 그리는 이야기로, 모네가 눈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함께 생활하는 아이의 도움으로 지베르니의 신선한 식 재료로 맛있는 식탁을 만들어 가는 이야기이다.

화가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은, 그 재능을 마음 속 깊이 사랑하고 있었을 것이다. 눈 앞에서 새로운 그림이 탄생하는 것이 가장의 행복이었지 않을까. 그래서 더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까 싶다. 이 책을 읽은 후에 다시 한번 그림을 보게 된다면, 좀 더 깊게 그림과 사랑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목차소개>

1. 아름다운 묘
2. 에투알
3. 탄기 할아버지
4. 지베르니의 식탁

<저자소개>

하라다 마하

1962 년 도쿄에서 태어났다. 간사이 학원대학 문학부 일본 문학과 및 와세다 대학 제 2 문학부 미술사학과를 졸업했다. 마리무라 미술관, 이토추 상사, 모리빌딩 미술관 설립 준비실에서 근무했다. 모리빌딩에서 재직 중 일 때 뉴욕 근대 미술관에 파견 되어 근무를 했다. 그 후 독립해서 프리 큐레이터, 컬처라이터가 되었다. 2005 년 '카푸를 기다리며'로 제 1 회 일본 러브스토리 대상을 수상하며 작가로 데뷔했다. 2012 년 화가 앙리 루소의 대표작 '꿈'을 둘러싼 아트 미스터리 '낙원 캔버스'로 제 25 회 야마모토 슈고로상을 수상하였다.

No.20150624-003

제목: 서점의 책장, 책의 기척

저자: 사노 마모루

페이지수: 200

장르: 에세이

출간일: 2012년 09월 25일



<내용소개>

전 서점 주인이 말해주는 서점의 경영, 책과 서점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쓴 에세이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휴대기기를 이용해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또, 할인된 가격에 집에서 편하게, 그것도 빠르게 받아 볼 수 있는 인터넷 서점이 늘어나, 대형서점을 제외한 오프라인 서점은 다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오프라인 시장이 없어지는 원인의 또 한가지로는 서적, 잡지가 제공하던 오락, 실용적인 요구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무엇을 알아보기 위해 책을 펼치는 것 보다는 인터넷을 이용해 찾아보는 것이 더 빠르다. 이러한 생활 환경의 변화에 의해 책을 구입하는 비용도 적어졌다고 한다. 인터넷 사용이 많아지면서 광고도 인터넷으로 옮겨가, 잡지 광고는 줄어든다. 광고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잡지의 경우에는 출판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종이로 만든 잡지보다는 그 잡지를 전자화 시켜 인터넷에서 판매를 한다. 이런 식이라면 출판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팔아야 하는 서점은 영업에 지장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여전히, 서점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다. 꼭 책을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도, 책을 보러 가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다. 서점에 들어가, 눈에 띄는 책을 펼쳐 몇 줄 읽어본다. 머릿속에서 문장이 묘사하는 풍경, 인물이 떠오른다. 책에서 눈을 떼고 선반의, 그 책 주변을 살펴보면 많은 책들이 머릿속에서 연결되어 세계를 만들어 간다. 최근에는 이러한 서점의 즐거움을 느끼려면 대형서점에만 가야 한다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저자는 도쿄의 진보초에 있는 도쿄당서점에서 긴 시간 점장을 지낸 책 세계의 베테랑이다. 이 책은 그런 저자가 책과 서점과의 추억과 일을 그만 두기까지 몇 년간의 서점의 나날을 그린 에세이다. 저자는 책의 목소리를 듣고, 책과 책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책꽂이에 꽂아 넣는다. 이것이 서점에서의 '선반을 만들다'인 것이다. 서점은 재미있는 책을 찾기에는 편리하지만, 원하는 한 권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최근의 대형서점에서는 서점 안에 재고를 파악 할 수 있도록 검색용 컴퓨터를 놓아 두는 곳이 많은데, 책의 위치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찾기 힘들어 진다. 그 대신에 어느 책을 찾으려고 그것과 같은 테마의 책들이 놓여 있는 곳에 가면 모든 책을 갖고 싶어진다. 그것이 서점의 선반 만드는 법으로, 사람의 사고에 맞춰 책을 넣어 두고 있는 것이다.

책을 분류 별로 나누어 두는 도서관과의 차이점이다. 이 책을 읽으면 당장이라도 서점으로 달려 가서, 서점의 선반 앞에 서서 책의 김새를 느껴보고, 책이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며 책과 옆에 있는 책의 연결고리를 찾아보고 싶어질 것이다.

<목차소개>

- I. 책의 목소리를 듣는다- 서점의 책장의 넓어짐
- II. 2009년부터 2010년의 일지
- III. 책을 둘러싼 이야기- 서점은 누구의 것인가
- IV. 도쿄당 서점 점장 시대
- V. 책과 나- 경험은 독서

<저자소개>

사노 마모루

1947 년, 야마나시에서 태어났다. 1972 년에 와세다 대학 문학부를 졸업 한 후, 도쿄의 칸보초에 있는 '도쿄당 서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했다.

No.20150624-004

제목: 초(超)소식 성공법

저자: 후나세 슌스케

페이지수: 192

장르: 건강

출간일: 2015년 03월 16일



<내용소개>

건강해 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건강비법서

현대는 영양소 과잉 섭취 시대로, 영양의 균형이 흐트러져 많은 대사성 질환이 많이 생겨났다. 이것을 바로 잡으려면 당질, 단백질, 지방질 섭취를 줄이고 효소,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섭취를 늘리는 소식요법으로 깨어진 영양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일본에는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의 공통적인 습관 하나가 '소식' 이라고 한다. 의료 관계자들은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으면 식사량의 40~50퍼센트를 줄이면 된다고 한다. 평소 양보다 급하게 줄여서 건강이 더 안 좋아 지는 경우도 있기에, 양을 급하게 줄이기 보다는 권장 칼로리의 절반 정도인 50~60%를 줄여서 먹는 것을 '소식' 이라고 한다. 또, 소식을 하기 위해 끼니를 거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 끼니를 거르게 되면 폭식이나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고, 체력이 저하된다. 이런 일이 지속되면 우울증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게 된다. 바른 '소식'을 함으로써 우리 몸에 건강한 세포만 살아남아서 건강해 지는 것이다. '소식'으로 인해 몸도 가벼워지고, 피로도 풀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될 것이다. 즉, 소식을 함으로써 건강해지고, 이것이 성공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도 소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각 계에서 활약하는 사람들 중 '소식 실천자'가 많고, 활력의 원천은 많이 먹기 라는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소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소식을 하는 방법은 다양하여 어떤 사람은 1일 1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1일 2식을 하는 사람도 있으며, 어떤 사람은 1일 3식을 하되 식사량을 반으로 줄여서 먹기도 한다. 모두 소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자기에게 맞는 소식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에서는 소식을 하면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사진과 그래프를 이용해 쉽게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소식요법에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더욱 더 강한 동기부여를 주고 있다. 또한, 이제 막 소식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좌절하지 않는 소식방법도 설명해 주고 있다. 머리로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면, 바로 실천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원서의 제목에는 '성공하는 남자'라

고 적혀있지만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기 때문에 누가 읽어도 무방한 타이틀이다.

<목차소개>

제 1장: '성공하는 남자'는 모두 '소식'

(‘소식’으로 몸이 가벼워진다 / ‘소식’으로 집중력이 올라간다 / ‘소식’이면 짧은 수면으로도 괜찮다 / ‘소식’으로 시간 여유가 생긴다 등)

제 2장: 좌절하지 않는 ‘소식’은 이렇게 실행!

(아침 점심 저녁 어떤 식사를 빼면 좋을까? / 주말 단식만으로도 효과는 있나? 등)

제 3장: 그렇게는 말하지만... ‘소식’을 방해하는 상식의 거짓말& 편견

(‘1일3식 제대로 먹지 않으면 몸에 나쁘다?’ / ‘배가 부를 때까지 먹지 않으면 만족 할 수 없다?’ / ‘소식은 남자답지 않다?’ 등)

제 4장: ‘소식’을 할 땐 뭘 먹지?

(‘고기는 스테미너, 파워의 원료?’ / ‘우유, 치즈가 몸에 좋지 않다’ 는 정말? 등)

제 5장: ‘성공하는 남자’는 ‘소식’으로 병에 걸리지 않는다

(‘식사’와 ‘위장’의 혼란이 만병의 근원 / 단식으로 암이 고쳐진다? / 심장이 안 좋다고 의사가 말했는데요 / ‘소식’이 치매를 예방한다 등)

<저자소개>

후나세 슌스케

1950년 후쿠오카에서 태어났다. 식품, 의료, 환경문제를 다루는 저널리스트이자 평론가이다. 일본 소비자 연맹의 활동에 참가하여 “소비자 리포트”의 편집 등을 거쳐, 프리랜서가 되었다.

No.20150624-005

제목: <만화판> 왜 철물점은 망하지 않을까?

저자: 야마다 신야(원작), 마에다 마키코(일러스트)

페이지수: 178

장르: 비즈니스 실용 / 코믹

출간일: 2014년 12월 18일



<내용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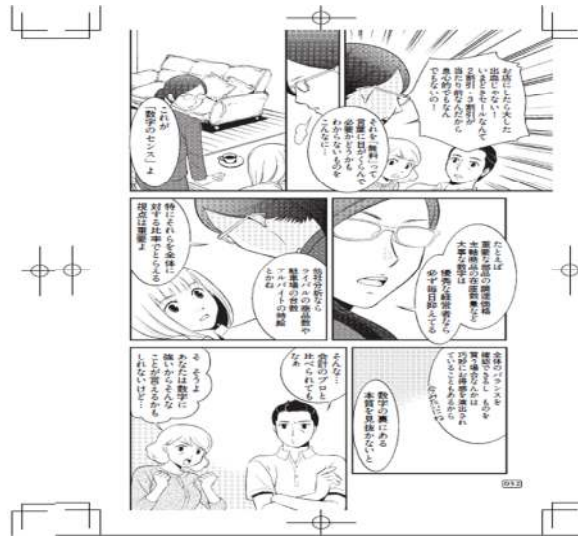
일상에 숨어있는 경제법칙을 만화로 보는 재미있는 회계 입문서

최근 많은 경영자들이 회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반인들 역시 회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본적인 회계를 통해 간단한 경영의 분석을 하는 것은 사업자나 경리 업무를 보는 직장인에게는 필수적인 능력이다.

회계란, 회계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경제적 실체와 관련된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해 보고하는 과정 이라고 정의된다. 회계의 목적은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이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전제되고 있는 실체와 관련된 현상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며, 회계는 이러한 현상을 금액으로써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회계는 단지 돈 계산의 차원이 아니라 외부이해 관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회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흔히 회계 하면 떠오르는 것은 숫자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숫자를 싫어한다. 즉 회계를 싫어하는 것이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회계는 피할 수 없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수익을 내고, 비용을 지출하며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사이클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어려운 회계를 일상에서 접하는 갖가지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면서 독자들에게 회계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과 회계 업무를 귀찮고 곱고러운 대상에서 친근한 대상으로 여기도록 하는데 주력했다. 회계를 어려워하는 초보자에게 회계를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쓴 책에다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화로 그 내용을 풀어내어, 젊은 층의 독자가 더 간단하게 '돈과 숫자의 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제 막 회계를 시작하려는 일반인, 사업자 등이 읽기 시작하면 금방 읽어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본문이미지>



<목차소개>

- 프롤로그: 루카의 아빠, 회사에서 정리해고!? 크레페 가게를 한다는 것이 정말!?
- Chapter1: 숫자에 약해도 '숫자의 센스'가 있으면 좋다 ~숫자의 센스
- Chapter2: 빨래 건조대 장사는 왜 망하지 않을까? ~이익 창출 방법
- Chapter3: 손님이 적은 고급 프랑스 요리점이 계속 되는 이유 ~연결경영
- Chapter4: 재고만 쌓이는 자연주의 식품점 ~재고관리와 자금 순환
- Chapter5: 모두 판매 했는데 혼났다!? ~기회 손실과 결산서
- Chapter6: 드링크세트로 단가를 올려서 매상이 늘지 않는 이유 ~회전률
- Chapter7: 더치페이에서 계산하는 사람에게 숨겨진 이점 ~캐시 플로우
- 속담 회계학 ~전해 내려오는 돈의 지혜
- 회계용어집

책의 복습

<저자소개>

원작 야마다 신야

공인 회계사이며 세무사이다. 1976 년 고베에서 태어나 오사카대학을 졸업했다. 도신 하이스쿨을 퇴직한 후 공인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 중앙 아오야마 감수법인, 프라이스 워터 하우스 쿠퍼스를 거쳐 현재는 일본 최대급의 예능계 전문 회계 사무소인 일반재단법인 예능 문화 회계 재단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림 마에다 마키코

시마네 마츠에시 에서 태어나, 현재는 도쿄에 살고 있다. '소다 팝'이라는 이름으로 신켄제미 통신교육강좌에서 일러스트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작품이 만화 데뷔작이다.

No.20150624-006

제목: 행복하게 사는 혼자서 법칙

저자: 에하라 히로유키

페이지수: 209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5년 03월 11일



<내용소개>

혼자여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

흔히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다고 한다. 모두 '혼자'라는 말을 극도로 거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혼자 살고, 혼자 남아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항상 나와 함께 있어야 하는 사람을 구하고, 만나서 떠들 친구들이 있어야 하고, 나의 시간들을 업무 혹은 약속들로 가득 채워 두어야 마음이 편안해 지는 현대인, 혼자 있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혼자서 태어나, 혼자서 죽어간다. 그것은 바꿀 수도 없는 사실이고, 가족이 있어도 애인이나 친구가 많던 적던 간에 모두 다 하는 말이다. 즉,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죽을 계획을 세워도, 돌아가실 때 주위 사람들이 지켜봐 주어도 혼자서 죽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점점 더 고립감이 들고 우울증과 외로움, 고독감을 느낀다.

이 세상에 홀로 왔다가 홀로 사라지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라면, 외로움에 파 묻혀 신음하고, 몸부림 치기보다는 외로움과 정면승부하고 그 속에서 성취를 찾아내야 한다. 사람은 타인을 인식하고, 비교함으로써 고독이란 것을 알아간다. 가족과 친구와 있어도 고독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혼자여도 마음 풍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 차이는 자립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 살아가는가의 차이이다. 저자는 의존심이 강한데다가 작은 마찰이 생겨났을 뿐인데 '누구도 날 이해해주지 않아', '나는 외톨이다' 라고 생각해버리는 사람은 고독감을 느낀다고 한다. 고독은 소외감이나 고립감을 느끼면서 생겨나는데, 사실은 자신이 누구와도 친해지고 싶지 않을 뿐이다. '사람이 고독을 느끼는 것은, 스스로가 마음을 열지 않았을 때'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각오와 지혜를 얻고 싶은 사람을 위해 저자가 카운셀링을 해주고 있다. 막연하게 혼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정말 그 상태로도 괜찮은가"고 질문하고, 가족과 아이가 있어 혼자서 살아가는 것을 생각한 적이 없던 사람에게는 사람은 다 혼자라는 진실을 전하면서 '혼자서 살아가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을 위해 불안을 떨쳐내고 자립해 살아가기 위한 어드바이스를 담은 책이다. 자신의 인생의 앞길에 불안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당신 스스로가 정한 것이 정답입니다" 라고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 넣

어줄 것이다. 그리고 자립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각오를 가지게 해 줄 것이다. 자립해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토대가 되어주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실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준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목차소개>

제 1장: '혼자서 산다'는 의미

(1. 혼자를 선택하는 사람 / 2. 선택하지 않았는데 혼자인 사람)

제 2장: 당신은 혼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1. 혼자인 인생이 무서운 사람 / 2. 혼자인 인생을 희망하지만 불안한 사람)

제 3장: 행복하게 살기 위한 철학

(가산법으로 산다 / 주위 사람과 조화롭기 위해서 / 사후에 떠도는 사람, 떠돌지 못하는 사람 등)

제 4장: 친구는 필요한가?

(당신에게 친구는 있습니까? / 행복한 친구관계란? / 사람과 엮이는 것이 무서운 트라우마 등)

제 5장: 결혼과 자립

(1. 결혼하면 혼자가 아닌가? / 2. 아이는 의지가 되는가? / 3. 이혼하고 혼자)

제 6장: 부모(가족)과의 관계

(부모의 요양으로 결혼 할 수 없다 / 부모를 교육하는 시대 / 혈연관계에 의한 노인시설 등)

제 7장: 실질적인 불안은 어떻게 떨쳐내는가

(1. '이미 늦었어' 하고 포기하는 사람에게 / 2.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

제 8장: 고고함은 멋지다

(1. 행복한 고고한 죽음 / 2. 진짜 행복이란 두려울 것이 없는 것)

<저자소개>

에하라 히로유키

유심론자이고, 일반 재단법인 일본 스피리추얼리즘(유심론) 협회 대표이사이다. 1989년에 스피리추얼리즘 연구소를 설립했다. 오페라 가수로서도 활약했다.

No.20150624-007

제목: SPEED: 빠름은 모든 것을 해결한다

저자: 아카바 유지

페이지수: 272

장르: 비즈니스 실용

출간일: 2015년 01월 23일



<내용소개>

일의 스피드를 올리기 위한 철학과 노하우를 알려주는 실용서

우리는 빠름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조금이라도 느리면 답답함에 어쩔 줄을 몰라 한다. 무슨 문제가 생겨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이렇게 빠름을 추구하는 사회지만, 많은 사람들은 빠른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많이 고민하는 것을 신중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빠른 결정을 내리지 못한 탓에 좋은 기회를 놓친 사람도 많다. 또, 그렇게 고민하다 보면 결국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다가와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다. 결정을 내리는 데 생각할 만한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B 플랜을 제시하기는커녕 당황해서 엉뚱한 결정을 내리고 일을 그르치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사회나 조직에서 성공을 거두기는 힘들다.

저자는 2013년에 발매한 책 '0초 사고'에서 강조했던 '메모하기' 이외에 모든 일에 있어서 스피드를 올릴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하고 있다. 처음 강조한 '메모하기'는 짧고 치열하면서도 깊은 생각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훈련법이라고 한다. 머릿속에 떠오른 모든 단어들을 A4용지에 쏟아 내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추가하고 정리한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가 수집되고, 그 정보는 훗날 꼭 도움이 되게 되어 빠른 결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빨리 내리기만 해도 막혀있던 일이 술술 풀리게 될 것이다. 일을 빠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빨리 시작하면 일의 순서를 정하는데 여유의 시간을 쓸 수 있게 된다.

저자는 사람들이 일을 느리게 하는 이유를 정확히 집어내고, 일을 빨리 하게 되면 나올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일이 늦는 이유를 읽고, 거기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저자가 제안하는 생각의 스피드를 올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해 보자. 메모를 하고, 가설 생각법, 그리고 저자가 알려주는 노하우를 최대한 이용한다면 막힘 없이 빠르게 일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모든 것에서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좀 더 시간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목차소개>

제 1장: 빠름은 모든 것을 해결한다.

(일본인의 생산성은 왜 낮은가? / 당신의 일이 늦어지는 이유 / 빠름이 해결하는 5개 / 스피드는 영원히 계속 올라간다)

제 2장: 스피드를 올리기 위한 8개의 원칙

(일단 전체상을 그린다 / 일의 급소를 누른다 / 한발 앞지른다 / 좋은 순환을 만든다 등)

제 3장: 생각의 스피드를 올리는 구체적인 방법

(‘메모’로 0초사고를 노리자 / 정말 일에서 쓸 수 있는 문제 파악능력, 해결능력이란 / 다른 차원의 스피드를 불러오는 가설사고 등)

제 4장: 스피드와 효율을 극한까지 올리는 노하우

(가장 효과적인 정보수집법 / 서류, 자료작성의 시간을 최소화한다 / 회의는 여기까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 메일을 다스리는 사람이 시간도 다스린다 / 커뮤니케이션의 실패를 없애자)

<저자소개>

아카바 유지

1978년 도쿄대학 공학부를 졸업한 후, 코마츠 제작소에서 건설현장용 덤프트럭을 설계, 개발에 종사했다. 1983년부터 스탠포드 대학 대학원으로 유학하고, 기계공학석사, 석사상급과정을 수료했다. 1986년, 맥킨지에 입사, 다수의 프로젝트를 리드했다. 1990년 맥킨지 서울사무실을 처음부터 만들며 한국기업 특히 LG 그룹의 세계적인 약진을 뒷받침 했다. 2002년 브레이크 스루 파트너스 주식회사를 공동 창업했다. 최근에는 대기업의 경영개혁, 경영 인재 육성, 신 사업 창출, 오픈 이노베이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No.20150624-008

제목: 니체: 용기의 말

저자: 시라토리 하루히코

페이지수: 160

장르: 철학

출간일: 2014년 05월 22일



<내용소개>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다녔던 여행지를 니체의 말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책

유명한 철학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릴 만한 사람 중 한 명은 '니체'다. 그만큼 니체의 말은 활자화 된 모든 글에 자주 인용되고 있다. 170년 전에 태어난 그의 독자적 사상은 20세기 철학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지금까지도 현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니체는 1844년 독일 뢰켄에서 전통적인 목사집안의 첫 아들로 태어났다. 20세 본(Bonn) 대학에 입학하여, 신학과 고전문헌학을 공부하고, 다음 해 라이프치히 대학교로 옮겨 고전 문헌학을 공부하는 동시에 쇼펜하우어를 발견하면서 학자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바젤대학의 고전어와 고전 문헌학의 교수로 위촉되고, 랑게와 바그너에게 영향을 받아 본격적으로 철학적인 글을 쓰기 시작한다. 1870년 독일-프랑스 전쟁에 자원 의무병으로 참가 하기 위해 교수직을 쉬지만 이질과 디프테리아에 걸려 의가사 제대를 했다. 그 후 많은 책을 쓰게 되고, 그러던 중 육체적 고통이 점점 심해져 갔다. 건강상의 이유로 교직 생활을 하기 힘들어진 니체는 십 년간의 교직생활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 후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신선한 공기와 온화한 기후를 찾아 다니며 여행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여행을 다니며 니체는 더 많은 저작들을 쓰기 시작한다.

이 책은 니체가 다녔던 곳의 풍경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주옥 같은 니체의 말을 함께 엮은 책이다. 니체에게 있어서 여행이란 자신의 아픈 몸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지만, 자신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었다. 낯선 곳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 낯선 자신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탐구해 나아가는 여행이었던 것이다. 각지의 풍경,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의 만남, 이별은 니체의 사상과 저술의 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 유럽의 멋진 풍경과 함께 니체가 실제로 그 풍경을 보고 생각했을 법한 명언들을, 무언가 고민이 있을 때, 막막할 때에 가볍게 읽으면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소개>

시라토리 하루히코

아오모리에서 태어났다.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철학, 종교, 문학을 배웠다. 기성 개념에 묶이지 않고 철학과 종교에 관한 해설의 명쾌함에는 정평이 나 있다. 주요 저서로는 '초역 니체의 말', '머리가 좋아지는 사고술', '불교 [초(超)입문' 등이 있다.

No.20150624-009

제목: 공부 따윈 간단해!

저자: 사이토 타카시

페이지수: 94

장르: 아동 자기계발

출간일: 2004년 03월 20일



<내용소개>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전하는 공부가 즐거워지는 방법!

누구나 공부를 잘 하고 싶어합니다. 부모도, 아이도 성적을 올리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적이 오르면 아이도, 부모도 많이 기뻐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항상 생각합니다. “왜 공부를 해야 할까?” 부모는 공부를 시키고 싶어하고, 아이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꾸 공부를 하라고 하는 부모에게 아이는 반발심이 생기고 결국 공부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공부와 멀어지고, 아이는 부모와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가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답이 이 타이틀에 적혀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일본 내에서 가장 좋은 대학인 도쿄대학을 졸업한 저자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공부가 즐거워지고, 저자처럼 도쿄대학에 갈 수 있을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싫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즐겁게 하는 방법을 깨닫고 결국 도쿄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이 책을 쓴 저자는 공부는 요령만 터득하면 매우 재미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하면 공부가 즐거워 지는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함께 하는 공부친구를 만들고, 공부를 머리로 하는 스포츠 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스포츠라고 생각하면 연습하고, 잘 되면 즐거워지고, 이기면 기쁠 것입니다. 지면 분하고, 그러면 다시 연습을 해 이기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스스로 몰랐던 세계를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정신 없이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공부의 즐거움을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타이틀은 일본에서 스테디 셀러 시리즈인 “한 번에 이긴다! (ガツンと一発)” 시리즈 중 한 권입니다. 이 시리즈는 초등학생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한 답을 주는 타이틀로 이루어져 있고, 총 12권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본문이미지>

No.20150624-010

제목: 해달군

저자: MAYA MAXX

페이지수: 20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3년 04월 03일



<내용소개>

귀여운 해달의 행복한 일상

수족관에 가면 유유자적하게 해엄을 치는 바다동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중 특히 물에 둥둥 떠있는 해달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달은 때때로 땅으로 올라가 걸어 다니기도 하지만, 평생 바다에서 떠다니며 지낸다고 합니다. 해달은 바다에 누워 배를 물 위로 내밀고 둥둥 있습니다. 털이 적게 나있는 배 부분에 햇볕을 쬐며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책은 그런 유유자적한 해달의 모습을 그린 책입니다. 해달이 수영을 하고, 몸을 돌려보기도 하고, 세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달이 가장 좋아하는 조개를 돌을 이용해 깨먹기도 합니다. 조개 살을 먹고 기분이 좋아진 해달은 꾸벅꾸벅 졸기도 합니다. 해달은 아무 곳에도 신경을 쓰지 않고 유유히 해엄쳐 지내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귀여운 해달을 일본의 유명 화가 MAYA MAXX가 귀여운 글씨체와 귀여운 그림체로 이 책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소리를 내어 읽고, 해달의 몸짓을 따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 책을 읽은 후, 실제로 수족관에 가서 해달을 보여주는 것도 아이에게 좋을 것입니다. 글씨도 적기 때문에 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읽어주면 좋을 책입니다.

<저자소개>

MAYA MAXX

1961년 아이치에서 태어났다. 와세다 대학 교육학부를 졸업했다. 1993년에 첫 개인전 'COMING AND GOING'을 열었다. 이 후, 매년 개인전을 개최하고 있다. CD 자켓, CM 등에 일러스트를 제공하고, '진검 십대 수다장', '하얀 고양이 시로양', '손을 잡으면.....!' 등이 있다.

< 본문 이미지 >

